

국별 리포트

# 이집트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9.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7
IV. 국제신인도 .....	10
V. 종합의견 .....	1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I. 일반개황

면적	1,002천 km <sup>2</sup>	GDP	2,185억 달러 (2010년)
인구	84.5백만 명 (2010년)	1인당 GDP	2,586 달러 (2010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Egyptian Pound (E£)
대외정책	친서방, 친아랍	환율(달러당)	5.63 (2010년)

- 이집트는 한반도의 5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와 8,5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음.
- 풍부한 노동력, 아랍과 서방을 아우르는 유연한 외교 정책 등으로 역내에서 정치, 경제, 외교의 중심국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명의 발상지인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
- 1981년 취임한 무바라크 대통령은 30년간 독재 정권을 유지하여 오다가, 2011년 1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굴복하여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며 장기 집권이 종식되었음.
- 이후 과도정부가 수립되고 2011년 3월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안이 통과되었으나, 정부의 개혁추진 지연에 대한 국민의 불만으로 시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의회 및 대통령 선거가 연기되는 등 사회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안정을 회복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로 2011년에 경제성장률 대폭 둔화 전망

- 2007~08년에는 경제가 관광업 호조, 수에즈운하의 운영수입 증가, 천연가스 수출과 내수 증가 등에 힘입어 연 7%대의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였음.
- 2009년에는 세계적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았으나, 국내 수요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였고 정부의 경기부양책, 천연가스 부문의 성장으로 4.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성장의 둔화 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음.
- 2010년에는 세계 경기 회복,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인한 내수 증가와 건설·통신 부문의 성장 등으로 5.1%의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11년에는 무바라크 정권 붕괴로 인한 정치·사회적 불확실성 증대, 내수 감소, 관광업 등 서비스 산업의 대규모 타격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1%대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 소비자물가 상승세 지속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최근 수년간 식료품 및 에너지의 가격 불안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며, 특히 2008년에는 18.3%에 달하였음.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sup>e</sup>	2011 <sup>f</sup>
경제성장률	7.1	7.2	4.7	5.1	1.0
재정수지/GDP	-7.3	-6.8	-6.9	-8.1	-9.7
소비자물가상승률	9.5	18.3	11.7	11.6	11.8

자료: IMF.

- 2009년에는 상품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전년보다 하락하였으나 11.7%를 기록하였고 2010년에도 11.6%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두 자릿수의 높은 소비자물가상승세가 지속되어 왔음.
- 2011년에도 정치·사회적 불안에 따른 이집트 파운드화의 가치하락 등으로 11%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 재정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지속

- 재정수지는 확대 재정정책, 비대한 공공조직, 광범위한 보조금 지원 등으로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2007~09년에 6~7%대를 유지하였으나, 2010년에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경기부양 정책 등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로 적자 폭이 8%대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 2011년에는 민주화 혁명 이후 사회 안정을 위한 보조금 확대 등 정부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10%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됨.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고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

- 2010년을 기준으로 관광, 수에즈운하 운영, 기타 공공서비스 등 서비스 산업이 GDP의 4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섬유, 식료품 가공 중심의 제조업 및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 개발 부문이 37.5%, 면화 중심의 농업 부문이 14%를 차지하고 있음.
-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관광업, 수에즈운하 운영수입 등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 경제 전반이 국내 정치의 안정도, 중동의 정세, 테러 발생 유무, 세계 운송경기 등 대내외 충격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나. 성장 잠재력

### □ 천연가스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

- 원유는 국내 최대 유전 지역인 수에즈 유전이 고갈되면서 생산량이 1998년 86만 b/d에서 2010년 74만 b/d로 감소세인 반면, 천연가스는 나일강 삼각주 및 서부 사막 지역을 중심으로 발굴에 성공하면서 최근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음.
  - 천연가스는 2010년 말 기준 확인매장량이 78조  $\text{ft}^3$ (전세계 매장량의 1.2%, 16위)로서 이집트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였는데, 정부는 추정매장량을 1,203조  $\text{ft}^3$ 로 예상하고 있음.
  - 이집트는 가스수출국포럼(Gas Exporting Countries Forum: GECF)\* 회원국으로 2005년부터 액화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시작하였는데, 2010년 수출 규모는 135억  $\text{m}^3$ 이며, 2015년에는 150억  $\text{m}^3$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 GECF는 천연가스 생산국들의 모임으로 2001년 러시아를 중심으로 설립되어 2008년 정식 기구가 되었음. 러시아, 이란 등 11개 가입국이 세계 가스 매장량의 70%, 생산량의 45%를 차지하고 있음.
- 이집트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2010년 기준 613억  $\text{m}^3$ 로 전세계의 1.9%를 차지하고 있음.

## 다. 정책성과

###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 시행

- 정부는 2008~10년에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약 54억 달러 (300억 이집트 파운드, GDP의 약 3%)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였음.
- 2008년에 150억 이집트 파운드가 도로, 항구 등 인프라 건설 및 자유무역 지대 개발 등에 투입되었으며, 2009~10년에도 150억 이집트 파운드가 인프라 건설과 수출 육성 등에 투자되었음.

-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2009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4.7%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으며, 2010년에도 5%를 상회하는 비교적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하여 호평을 받았음.

#### □ 공기업 민영화 지연 전망

- 정부는 2010년 1월까지 총 199개 공기업(69억 달러 규모)에 대한 민영화를 이행하는 등 비교적 착실히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왔음.
- 그러나 무바라크 정권 붕괴 이후 수립된 과도정부가 이전 정권에서 체결된 민영화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고 147개 공기업의 민영화도 당분간 보류하기로 함에 따라 민영화 작업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

### 3. 대외거래

#### □ 경상수지 적자 규모 확대될 전망

- 경제 발전과 인구 증가에 따른 상품 수입 증가로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2007년까지는 상품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외화획득원인 관광수입, 해외근로자 송금, 수에즈운하 운영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08년에는 상품 수입이 전년 대비 26% 증가하는 등 상품수지 적자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어 경상수지 또한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2009년에는 경기침체로 서비스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GDP 대비 2.3%로 확대되었음.
- 2010년에는 상품수지 적자 폭 확대로 GDP 대비 2%대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1년에도 관광수입 등 서비스수지 흑자 폭 축소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 외환보유액은 크게 감소할 전망

- 주요 외화 획득원인 관광수입 및 수에즈운하 운영 수입 증가,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에 따라 외환보유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말 기준 358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11년에는 정치·사회적 불안에 따른 관광수입 감소, 이집트 파운드화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외환보유액은 270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보다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 외채상황은 양호

- 외채규모는 최근 수년간 300억 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GDP의 지속적 증가로 GDP 대비 외채비중은 2007년 23%에서 2010년 15%대로 하락하였음.
- 또한 DSR은 2010년에 5.2%를 기록하는 등 최근 수년간 4~5%를 유지하고 있어 외채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sup>e</sup>	2011 <sup>f</sup>
경 상 수 지	412	-1,415	-3,349	-4,300	-6,300
경 상 수 지 / G D P	2.1	-0.8	-2.3	-2.0	-2.7
상 품 수 지	-14,900	-19,759	-16,818	-26,513	-27,650
수 출	24,455	29,849	23,089	25,024	27,468
수 입	39,354	49,608	39,907	51,537	55,118
외 환 보 유 액	31,374	33,849	33,933	35,792	27,700
총 외 채 잔 액	34,120	33,417	33,257	35,288	36,748
총 외 채 잔 액 / GDP	23.0	19.0	16.4	15.7	14.9
D S R	5.3	4.9	5.6	5.2	6.2

자료: IMF 및 EIU.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안정

##### □ 반정부 시위 발생 및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

- 튀니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는 물가 상승과 경제난으로 고통받던 이집트로 확대되어 2011년 1월 25일에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었음.
- 이에 무바라크 정권은 대통령 연임 제한, 야권 인사들의 대선 출마 허용, 공공 부문 급여의 15% 인상 등 개혁 조치를 발표하였으나, 시민들은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 의회 해산과 재선거를 요구하며 시위를 지속하였음.
- 무바라크 정권과 시위대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였던 이집트 군부가 국민의 요구에 따르기로 결정하고 무바라크에 퇴진 압력을 행사하면서 무바라크 대통령이 시위 발생 18일 만에 퇴진함에 따라 30년 간의 장기 집권체제가 막을 내리게 되었음.

##### □ 과도정부의 구성 및 국정 운영

- 무바라크의 퇴진 이후 군사평의회가 권력을 이양받아 국가를 통치하고 있으며, 모하메드 후세인 탄타위 장군이 군사평의회를 이끌고 있음.
- 군사평의회는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켰으며, 개헌위헌회를 구성하여 새 헌법안을 마련해 2011년 3월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음. 국민투표 결과 수정 헌법안이 통과되었음.
- 과도정부는 치안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 식료품 가격 안정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과거 정부인사의 과도 내각 참여 배제를 요구함에 따라 샤라프(Essam Sharaf) 총리는 2011년 7월에 절반 이상의 장관을 교체하는 대폭적인 개각을 단행하였음.



## □ 의회 및 대통령 선거 연기

- 군사평의회는 권력을 이양받은 직후 민주적 선거를 통한 정권 이양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하였고, 2011년 9월에 의회선거, 2개월 후에 대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그러나 빈번한 시위 발생과 준비 부족 등으로 의회선거는 2011년 11월로, 대선은 2012년으로 연기된 상황임.
  - 주요 대통령 후보로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Mohammed ElBaradei) 국제원자력기구 전 사무총장, 아므르 무사(Amr Moussa) 아랍연맹 전 사무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음.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의 간헐적 테러 발생

- 1997년 외국인 관광객 등 62명이 사망한 룩소르 (Luxor) 테러 사건 이후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소강상태에 있던 테러가 최근 간헐적으로 재발하고 있음.
  - 2005년 4월 카이로 중앙광장 자폭 테러(외국인 3명 부상), 2005년 7월 시나이반도 삼엘셰이크 폭탄 테러(64명 사망), 2006년 시나이반도 다합 폭탄 테러(19명 사망), 2009년 카이로 시장 폭탄 테러(1명 사망), 2011년 알렉산드리아 교회 폭탄 테러 (21명 사망) 등
- 최근의 국지적 테러 사건은 알카에다와 연계된 일부 극단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고 있으며, 무슬림형제단 등은 강경투쟁 노선에서 선회하여 정당을 결성하였음.
- 또한 무바라크 정권 붕괴 이후 살라피스트 등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활동이 강화되고 있으며,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무슬림과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도 간의 갈등도 상존하고 있음.

## □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발생

-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의 활동, 이라크전을 전후한 반미시위, 식량 부족으로 인한 폭동 등이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왔으며, 2011년 1월에는 곡물 가격 폭등, 실업 문제 등의 경제난으로 고통받던 이집트 국민들에 의해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로 발전되었음.
- 이집트의 반정부 시위는 튀니지 혁명의 영향으로 촉발되었으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반정부 시위 전파로 종교세력 뿐 아니라 청년, 근로자, 여성 등 다양한 집단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었음.
- 무바라크 정권을 지지하는 중산층 중심의 친정부 시위대와 반정부 시위대 간의 유혈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시위 발생 이후 최소한 300여 명이 숨지고, 5,000여 명이 부상한 것으로 추정됨.
-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퇴진 이후 군사평의회가 국정을 운영하게 되면서 반정부 시위는 일단락되었으나, 물가 상승, 일자리 부족,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빈번히 발생하여 왔음.
- 또한 최근에는 과도 정부의 리더십 부족, 개혁 지연을 비판하고 총선 및 대선 일정 확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등 당분간 사회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3. 국제관계

### □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변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이집트는 1991년 걸프전 당시 연합군에 가담하면서 미국 및 서방 세계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서방 강대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발전을 주요 대외정책으로 삼아 왔음.
- 특히 미국은 매년 대규모 경제, 군사원조를 이집트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집트의 최대 교역대상국임. 무바라크 정권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계 및 이라크 문제에서 서방 측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미, 중동 간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여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음.

- 그러나 친서방 정책을 추구하였던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퇴진하면서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에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음
  - 무바라크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였던 국민들이 미국의 정치 개입을 반대하고 있고, 차기 대통령 선거도 예정되어 있어 이집트의 친서방 정책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과도 정부 및 차기 정권에서 이집트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영향력은 축소될 것으로 보이나, 미국이 이집트에 매년 13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있고 경제원조도 대폭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이집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친서방 정책의 변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중동 평화구축 중재자 역할 수행**

- 이집트 정부는 네 차례에 걸친 중동전쟁 이후 1979년에 아랍국가로는 최초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였음. 인근 아랍국과도 원만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 등 중동 평화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군사평의회도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을 포함한 과거 정권이 체결한 모든 조약을 준수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파리클럽 리스케줄링 경험**

- 이집트는 파리클럽과 1987년, 1991년에 각각 71억 달러, 212억 달러 규모의 리스케줄링에 합의함에 따라 외채 잔액이 1989년 500억 달러에서 1991년 32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외채도입에 신중한 자세 견지**

- 리스케줄링 이후 정부는 외채 도입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최근 외채 잔액은 300억 달러 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

## 2. 국제시장평가

### □ 반정부 시위 사태로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 무바라크 정권이 붕괴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S&P, 무디스 등 3개 신용평가사는 이집트의 신용등급을 모두 하향 조정하였음.
- S&P는 2011년 2월에 기존의 BB+에서 BB로 1단계 하향조정하였고, 3월에는 등급전망을 '부정적(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Fitch도 2011년 2월에 BB로 1단계 하향조정한 후 6월에 등급전망을 '부정적(Negative)'으로 평가함.
- 무디스는 2011년 1월에 신용등급을 기존 Ba1에서 Ba2로 1단계 하향조정한 후에 3월에 Ba3로 또 다시 1단계 하향조정하였음.
- 한편, OECD는 2011년 1월에 이집트에 대한 정기평가 후 3월에 다시 수시평가를 실시하였는데, 반정부 시위가 일단락되는 등 최고조의 혼란 상태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여 기존 4등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최고 부보율 적용
- 영국 ECGD: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단기 인수 가능하나 제약 조건이 있을 수 있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4등급 (2011.3)	4등급 (2011.1)
S&P	BB (2011.2)	BB+ (2005.3)
Moody's	Ba3 (2011.3)	Ba2 (2011.1)
Fitch	BB (2011.2)	BB+ (2008.8)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5. 4. 13 (북한과는 1963. 8. 25 수교)
- **주요협정:** 문화협정(1968), 무역진흥협정(1984), 항공협정(1988), 이중과세방지협정(1994), 투자보장협정(1996), 보건협력협정(2000), 차관공여협정(2001), 원자력협정(2002)
- 우리나라의 대 이집트 교역 규모는 2006년 13억 달러에서 2010년 32억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상품수지 흑자도 2006년 4억 달러에서 2010년 13억 달러로 늘어났음.
- 2010년 대 이집트 수출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22.4억 달러, 수입은 석유제품, 천연가스 등을 중심으로 9.4억 달러를 기록함.
  - 2010년 우리나라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은 8.4억 달러 수준으로 대 이집트 수출의 38%를 차지하고 있음.
- 2011년 1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제 1회 한-이집트 경제장관회의에서 이집트의 신재생에너지, 원전, 지하철 등 인프라 사업과 플랜트, 자원개발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협의하였으나, 반정부 시위로 인한 정치 불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대 이집트 교역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 2011년 1~7월까지 수출액은 10억 달러, 수입액은 4.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 14% 감소하였음.
- 해외직접투자 (2011년 6월말 누계, 총투자 기준) : 26건, 183백만 달러

<표 4> **한 · 이집트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1,548	1,528	2,240	자동차,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수 입	1,330	463	938	석유제품, 천연가스, 정밀화학원료
합 계	2,878	1,991	3,178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 V. 종합 의견

- 이집트는 관광 등 서비스 산업 호조와 에너지 부문 성장 등에 힘입어 2007~08년에 7%를 상회하는 고도 성장세를 시현하였고, 세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2009년 4.7%, 2010년 5.1%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반정부 시위로 외국인 투자 감소, 주요 외화 획득원인 관광수입 급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파업이 지속되면서 2011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2011년에는 사회 안정을 위한 보조금 지급 증가 등으로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상품수지 적자 확대로 경상수지는 당분간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전국적인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굴복하여 30년 간 장기 집권하였던 무바라크 대통령이 퇴진하고 군사평의회가 국정운영을 맡게 되면서 극심한 혼란상태에서는 벗어났으나, 과도정부의 리더십 부족, 더딘 개혁 속도 등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여전하고, 2011년 말 총선과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 사회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책임조사역 박대원 (☎02-3779-5723)

E-mail: [parkdw@koreaexim.go.kr](mailto:parkdw@koreaexim.go.kr)